

[淸日전쟁 120년, 현장을 가다] "중·일 관계, 과거 청일전쟁 때와 비슷... 우리에게겐 위기이자 기회"

입력 : 2014.07.25 03:05

서울대 박철희 교수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 전이(轉移)가 일어날 때 한반도가 늘 중심이었다. 청일전쟁은 당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청에 일본이 도전한 것이다. 지금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미국·일본에 대해 중국이 외교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제정치 전문가 박철희 서울대 교수 <사진> 는 23일 "한반도를 놓고 두 세력이 부딪치는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기회이자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120년 전과 다른 점은.

"한국이 성장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제멋대로 할 수 없는 비대칭적 역지력을 갖고 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다. 미국이라는 동맹이 '역외 균형자'로서 한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 또 지금은 국제법과 유엔이 있어 다른 나라를 힘으로 지배할 수 없는 시대다."

—불안 요소가 있다면.

"북한이 불안 요소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너무 높다."

—중·일 갈등이 심각하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돼 있지 않다. 예상 못 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양국 모두 어느 한 쪽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어떤 외교를 해야 하나.

"미국과의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에 기울고 일본과 멀어지는 상황은 미국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중국과 경제·문화 교류를 심화하더라도 안보 협력까지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일본과는 과거사에 사로잡힌 단선적 인식을 넘어 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동남아·유럽 등 역외 세력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공동기획: 동북아역사재단

인쇄하기

취소

